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사무엘상 3:1-14)

오늘 말씀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이다. 우리는 일단 응답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온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입다물고 하나님한테만 말하라는 것이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말하면 뭐하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말하면 뭐하겠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 바란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언약 잡으면 지속적으로 응답 오는 것이다. 이 응답의 삶을 위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흘리신 것이 우리 인생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누리면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간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 하신다. 문제는 무슨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올인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기 때문에 복음을 예사로 생각한다. 눈을 뜨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으면 더 언약이 되고 더 깊고 큰 증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자꾸면 더 큰 응답, 증거, 정복 해 나가는 것이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발견하느냐 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언약이 답이다. 하나님 눈에는 인생이 너무 간단하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해결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놀리기 쉽다. 행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축복으로 보이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기게 된다. 그러면 힘들지 않다. 복음을 누리지 않고 전하려니까 힘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눈이 들어와야 한다.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것 하나로 끝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이상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리는 것이다. 이 근본 두가지 위에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통한 마음이 위에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주간을 위한 말씀인지 평생의 말씀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재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주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고 문제에서 나오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본문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눈 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이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은 응답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다. 신자는 복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런게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주 선명하게 나왔다. 우리는 많은 이상이 필요하다. 응답이 필요하다. 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왜냐? 하나님이 안주셔서 그런 것 아

니겠는가? 그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제사를 멸시하던 시대였다.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이 매말라 버리면 힘들어진다. 당시의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을 했다. 이들은 언약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음행도 문제지만 제사를 멸시한 것은 더 이상의 죄가 없을 정도로 악한 짓이었다. 그러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용서를 받는 길은 딱 하나이다. 약속의 피제사. 그래서 오늘 마지막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의 집의 죄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죄사함을 받을수 있는 길이 언약의 피제사밖에 없는데 그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세상은 점점 더 네피림 시대가 되어 간다.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도 점점 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복음이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그 때, 미국은 전세계 선교를 주도하였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미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도 복음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축복이고 미국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 이후에 전쟁났을 때에도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미국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다. 젊은 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한다. 우리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고, 오늘도 안젤리카가 렘넌트 운동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정말 렘넌트 운동이 정말로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으면 세상에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살겠나? 세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마약이나 정신병, 총기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뻘하다. 사단이 더 계속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깨는 답은 하나 뿐이다. 미국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삼단체고 뭐고 필요 없다. 복음이 일어서면 삼단체 다 깨지는 것이다. 왜 삼단체를 겁내겠는가? 가만히 놔두고 복음만 회복하면 된다. 미국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본문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없다는 것이다.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꾸 일어서고 경시하고 짓밟고. 우리가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뻘하다. 복음을 전해서 미국 교회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미국 뿐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 중에도 응답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 많은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 없을수가 없다. 그리고 오래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되는게 없을수 없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뒤돌아 보면 말씀이 희귀할 것이다. 아주 틀림 없다. 분명 말씀중심, 복음 중심이 아닐 것이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피가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닐 것이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과 상관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만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시간표 중에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악행을 막고 참된 제사를 회복하려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 고난을 줘서 어느날 깨달았다. 사실인. 그리고 사무엘을 왜 보내셨나? 사무엘에게 말씀을 줘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그러면 사단에게 당한다. 이것은 모든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받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복음 안으로 들어가

려고 발버등을 칠 것이다. 모든 기도 다 밀쳐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됨이 가슴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주신다는 것 아닌가? 이 복음이 회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응답이 없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했다는 것이다. 왜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이걸 전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만 사나? 우리가 먼저 산다. 다 그렇다. 모든 인물들이. 애굽이 살기 전에 요셉이 먼저 살아났다. 다니엘은 이미 그 기도를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살아났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많은 이상이 우리 삶에 살아난다. 복음을 정말 회복하고 예배때마다 말씀을 받고. 일단 복음을 진짜 회복하라.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게 전부라는 발견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복음에 올인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아직 몰라서. 그래서 올인을 못한다. 그걸 알면 복음에 올인하지 어디다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기도제목이 뭔가?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요. 기도제목 아닌가?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24로 가는 것이다. 복음도 없는데 24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무엇을 24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귀신에게 당한다. 24시간 다른 무엇에 집중하니까. 우상숭배이다. 그러면 귀신 온다. 영적 문제 일어난다. 복음 말고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재창조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이 되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 인생중에 많은 이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응답이 지속된다. 그리고 시대적 인생, 증인의 인생이 된다.

2. 정시기도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우리에게 만일 기도의 축복이 없으면 전부다 폭발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전부 안 듣는다. 그러면 다 죽으려고 대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다.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였다. 놀랍다. 내가 입으로 뭘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다. 요 16: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기도응답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시간에는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면 참 좋다. 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래야 말씀을 주신다. 그래야 말씀이 이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에 언약을 회복하면 많은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때 많은 응답과 함께 사단이 무너진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놀랍다. 멋있다. 진짜 예수님, 주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향하여.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응답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 안하나에 걸려 있는 것이다. 언약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 때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문제 세가지에서 해방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는 자신에게 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단 앞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회복을 하는 정시기도,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있겠는가? 그래서 시간을 정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잘 안정해진다면 하나님 나도 정시기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마음에 잡혀야 한다. 분명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거 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다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걱정 염려에 빠져버린다. 답이 있는데 답 옆에서 염려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못 고친다. 그래서 기도도 잊어버리니까 적으라는 것이다. 나도 다 해본 것이다. 나도 안되어서 발버둥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해야 될 것 아닌가? 뭐할건가? 오늘도 분명히 말해서, 오늘만 말한게 아니라 계속 말했다. 잊어버리지 마라. 쓰라니까, 적어서 붙여놔라. 여하간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시작된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답은 복음이다. 그것 말고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내 힘으로는 안된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면 감사하지만 내가 진짜 해야 한다. 모든 인생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복음은 분명히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하였다. 뱀의 머리는 반드시 깨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게 내 인생에 나타나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안되어지면 어딘가 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먼저이다. 내가 원인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왜 그런가.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해보고 진실하게 복음 누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복음을 딱 잡는 것이다. 이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언약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는 고백이 나온다. 너무나 감사해야 한다. 이게 망대기도의 기초이다. 이것이 없는데 전세계로 가는 망대의 기도를 내 속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된다 해도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실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24에 어느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로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날 깨닫고 사무엘을 보내셨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그런 어려움 속으로 밀어 넣어놓고 하나님앞에 진짜 기도하게 하고 딱 답을 주신 것이다. 고난은 진짜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답을 주고 사무엘을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복음 회복하라고 보냈다. 늘 듣는 복음. 늘 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병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한나를 통해서 그 어려운 기도 속에서 응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예로 보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달하기 위해 노예로 보냈다. 바벨론 큰 나라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포로로 보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